

헤레우스 센서 사업 부문, '헤레우스 넥센소스(Heraeus Nexensos)'로 개편

- 헤레우스, 자동차 및 전자 산업 수요 충족하기 위한 센서 사업 부문 재정비 및 확대
- 다양한 온도 센서 제품 중 백금 센서 수요 증대, 향후 이모빌리티(e-mobility) 등 미래 먹거리 겨냥

2019년 3월 18일, 수원 - 독일 테크놀로지 기업 헤레우스가 기존의 헤레우스 센서 사업 부문이 '헤레우스 넥센소스(Heraeus Nexensos)'로 개편됐다고 18일 밝혔다.

헤레우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센서 사업을 재정비 하고 확대해왔다.

헤레우스의 다양한 온도 센서 제품 중 특히, 최대 1,050°C의 고온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백금 센서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헤레우스의 백금 센서를 이용할 경우 온도 측정, 가열, 열처리 조절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헤레우스 넥센소스 사업부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이모빌리티(e-mobility)에 적합한 센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센서 제품들은 이모빌리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파워일렉트로닉스, 배터리, 전기모터, 충전 시스템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다. 이를 위해 헤레우스는 관련 스타트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인수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헤레우스 넥센소스의 랄프 메슈카트(Ralph Meschkat) 총괄은 "향후 5년간 헤레우스 넥센소스 사업부를 두 배로 확장하며,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헤레우스(Heraeus) 소개

헤레우스는 독일 하나우에 위치한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1851년 설립 이후 세계적인 가족 기업으로 성장했다. 헤레우스는 환경, 에너지, 전자,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17년 기준 헤레우스의 매출은 218억 유로이며, 전세계 40개 국가에 1만 3천여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헤레우스는 포춘(Fortune) 500대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독일 내 상위 10대 가족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헤레우스는 기술적 전문지식, 혁신, 뛰어난 운영 능력과 세계 선두업체로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헤레우스는 기업 고객의 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결합한 고급 솔루션을 제공한다.